

# ‘성범죄 예측’ 전자발찌 도입 논란 예고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성범죄자는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범죄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전자

## 법무부 내달부터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도입 재범 요인 분석해 이상징후 알려 조기 대응 GIS 이동 경로 분석·빅데이터 기법 등 활용

발찌 대상자들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부처명령 청구 전 조사서와 판결문,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등의 정형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한다. GIS에 대상자의 이동경로가 누적돼 저장·분석되면 시간대별 정상적인 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으로 자동으로 종합 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보일 때 상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된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상대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후 대응 중심의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등 재범을 차단 및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 말레이시아서 무료급식권 받으려다 2명 압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28일 노인 200명에게 배부하는 무료 급식권을 받기 위해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몰려들어 할머니 2명이 압사하는 비극이 빚어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쿠알라룸푸르 푸두 구역에서 행해진 무료 급식권 배부 행사의 한 경비원은 노인들이 자신이 먼저 급식권을 받기 위해 서로를 밀쳐냈으며 일부 노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숨진 2명은 로이온(78)과 아포(85)라는 여성들로 혼잡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료 급식권 배부 행사가 이뤄진 푸두종합상업단지의 관리 담당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권 배부는 다음주 설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레이시아의 뉴스타지에 밝혔다.

숨진 2명 외에 다른 2명의 노인도 다른 사망들에 갈려 부상을 입었다. 한 경비원은 무료 급식권을 먼저 받으려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라는 주최측 지시를 무시하고 서로를 밀쳐대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 시카고 25년만의 한파...항공기 600편 결항

미국 동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에 사상 최고 한파가 예고 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는 오는 30일 화씨 -22도(섭씨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는 지난 2014년 기록한 -15도(섭씨 -26도)를 깨는 최근 10년 사이 최저온도이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지난 1985년 -27도(섭씨 -32.8도)에 근접하는 기록이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실제 체감온도는 -40도(-40도)에서 -50도(-46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인치(15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시카고에는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6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미국 전역에는 803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했다.

이번 한파를 물고온 차가운 공기는 이번 주중 미국 중부 미시시피주까지 내려가 화요일까지 약 2인치(5cm)의 눈을 뿌릴 것으로 예보된다.

뉴욕, 워싱턴 등 동부 지역에서는 오는 30일 2.5cm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5도(-15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추운 전망이다.

## 멕시코 송유관화재 사망자 115명으로 늘어

멕시코 중부의 틀라후엘림판에서 발생한 대형송유관 폭발화재로 숨진 사망자가 115명으로 늘었다고 멕시코의 호르헤 알코세르 보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월 18일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부상자들 대부분이 중화상자여서 계속해서 매일 증가해왔다.

그러나 보건부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특히 토요일인 28일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중화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첫 날이었다. 지난 48시간동안 숨진 사람은 1명 밖에 없다”고 사태가 차츰 진정되고 있음을 알렸다.

아직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32명이며 이들은 예후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위장 중화상의 정도가 심해서 치료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알코세르 장관은 말했다. 그는 주말에 환자 8명을 위문했다. 그들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지만 “차츰 기억이 회복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고 장관은 전했다.

사고 당일 대형송유관 유출사고는 뿔린 송유관에서 연료가 간헐원천처럼 새겨 뿜어 나오면서 약 600~800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강풍과 용기들을 들고 공짜 휘발유를 퍼가기 위해 몰려 들었을 때 폭발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는 등 희생자가 많았다.

## 쿠바 아바나에 폭풍 몰아쳐 3명 사망

28일 아침(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에서 토네이도 폭풍이 몰아쳐 3명이 사망하고 174명이 다쳤다고 쿠바 대통령이 말했다.

쿠바 수도는 전날 일요일 밤 늦게부터 이날 이른 아침까지 강한 비파와 폭우에 갇혀 있었다. 대부분 지역이 밤에 전기가 끊겼다.

이날 아침 미구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트윗에다 폭풍에 진폭된 차량 옆에서 구조대와 함께한 자신의 사진을 싣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관영 언론에는 폭풍우에 관한 자세한 소식이 보이지 않았다.

## 전국조합장선거 입건 12 배 증가...금품 가장 많아

현재까지 총 82명 입건

오는 3월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 1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 입건자가 직전 선거 대비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일 44일 전인 지난 28일 기준 전국농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자수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75명은 수사 중,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선거에 선 같은 기간 기준 총 67명이 입건됐으며, 전체 총 1334명을 수사했었다.

현재까지 입건 사례 중 금품 선거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등 사례가 27명(32.9%)으로 뒤를 이었다. 입원 등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 대비해 지난 달 24일 전국 지검과 지청에 선거법외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29일 오전 전국 18개 지검과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법외 수사 방안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검찰은 후보 단일화 대가를 제공하는 등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조합원 및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나 물자미시 폭로, 조합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스



남해바다를 찾아온 봄 소식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2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바닷가에는 봄의전령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광주 교육현장 친일 잔재 조사·청산작업 ‘시동’

광주교육청이 교육현장 곳곳에 남겨진 친일 잔재물에 대한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분청 회의실에서 교육현장 친일 잔재 조사·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시민단체, 역사교사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역할과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방안, 친일 잔재 기초자료 조사 작업과 청산 절차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교가와 교기, 교복, 기념비, 기념식수 표지석은 물론 교과서 속

의 친일잔물, 친일 교육 및 행정 용어, 반장, 조희, 주번 제도 등 교단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친일문화까지도 조사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됐다.

학교 교육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 유·무형 방대한 친일 요소 조사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 친일 요소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논의됐다.

또 자료수집과 분석·정리, 보존·활용 방안 등을 전문연구소에 용역 형태로 의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TF팀의 지속적인 운영과 용역 의뢰, 학교 예산 지원을 위해 후속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시민단체 소속 한 위원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연계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남지역 독립민세운동에 불을 지핀 광주지역에선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교가 교체 운동이 선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가를 바꾸지는 운동은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를 불렀던 광주 지역 10여개 학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회가 한정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z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료, 자활치료, 영민 민력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